

# 여럿이 함께 이루는 건강한 문화

## 조합공동체 '소나무'의 최종덕 조합장

87년 창립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의미있는 책을 꾸준히 발간해 온 소나무 출판사가 '조합공동체 소나무'로 이름과 성격을 바꾸었다.

지난 3월 30일 조합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첫발을 내디딘 소나무 조합공동체는 소나무 출판사 외에 한의학과 철학의 결합을 고민하는 연구모임인 '동의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에 관심을 가진 직장인들의 동아리인 '한글방', 환경문제의 본질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환경과 자연철학연구소' 등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도 각기 별개의 활동을 벌여온 4개의 모임이 뿌리가 됐다.

초대 조합장으로 선임된 최종덕(42, 상지대 철학과)교수는 소나무 조합공동체를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세상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실천모임"이라고 설명한다.

### 사람이 사람처럼

우선은 종래 개별 단체에서 벌이던 각종 행사를 조합원 전체의 참여하에 더욱 발전 시키거나 계획인데, 얼마전부터 시작한 제4회 '사회문화학교' <배반의 문화인가 문화의 배반인가>는 조합공동체 소나무가 조합원과 일반대중을 위해 벌이는 첫 행사다. 방학때를 이용해 열 계획인 '어린이 자연학교'나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출판은 조합공동체 소나무의 주요한 사업이다. 조합 재정으로 출판사업을 꾸리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나 혼자 하는 일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종조합장의 기대다.

출판기획은 전체 이사와 출판상근자가 참여하는 출판기획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분기별로 모임을 갖는 조합이사회에서도 출판기획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다.

기획, 아이템 제공, 원고, 번역 등 출판의 전 분야에 조합원들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사실 그동안 소나무출판사의 경영이 몹시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팔릴 만한 책에 대한 유혹도 그래서 컸고, 실제로 그런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베스트셀러를 위한 기획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광고도 물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은 색 하드커버에 책 제목만 금박으로 새겨 만든 적지 않은 분량의 중국 철학서 《논형》은 이러한 원칙에 힘을 불어넣어준 사례. 2월에 발간한 이후 3천부 이상이 나갔다.

"역사, 철학 등 종래 주력 분야를 그대로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의 관심 분야인 환경, 동양철학, 자연, 한의학 등도 포괄할 계획입니다."

조선초기 일반 민중들의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무엇이었나, 상투튼 머리가 가렵지 않았을까 같은 형태의 자잘한 호기심을 통해 인류의 구체적인 생활의 역사를 살피게 될 《사생활의 역사》와 현재 3권까지 나와

**"역사, 철학 등의 주력분야와 조합원들의 관심분야인 환경, 동양철학, 자연 한의학을 포괄할 계획입니다. '재미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만들어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최종덕 조합장.

있는 《서양문명의 역사》 제4권이 근간 예정인 책이다. 10년 계획으로 진행중인 《동의보감》 완역작업도 굵직한 기획이다.

### 조합원의 이력·직업도 다양

조합비 한 구좌당 1만원하는 조합공동체 소나무의 조합원은 100여명. 환경운동가, 한의원 원장, 인쇄소 대표, 금융기관 지점장, 대학교수, 언론인, 출판사 직원 등 조합원들의 이력이나 직업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궁극적으로는 생산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우선은 자본에 얽매이거나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건강한 문화, 함께하는 문화를 창출하고 누리는 문화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

실하고자 합니다."

최 조합장은 조합공동체 소나무에 모인 조합원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한다. 여럿이 함께보다는 나혼자 잘 살기가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삶과 유리된 문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화, 우리의 전통과 역사보다는 외래의 것이 판치는 우리 문화의 현상에 이 작은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70년대 탈춤, 민속극 운동을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이 태동할 즈음 탈반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의 싹을 틔웠던 최종덕 조합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같이 합시다." — 박남정 기자

###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문시영 지음/200면/6,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1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의 윤리학적 근본 문제를 행복의 추구로 상정하고 덕과 악을 행복론적 전제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행복의 문제를 철학적 반성을 통한 윤리학의 문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 해석학과 비판적 사회 과학

이구슬 지음/208면/7,0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10

가다머의 해석학과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 과학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둘 사이의 해석학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 "심층 해석학" 또는 "비판적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해석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칸트 철학: 자연과 자유의 통일

김용정 지음/368면/12,000원

"자연과 자유의 통일"이라는 주제로 압축할 수 있는 칸트 철학의 여정(旅程)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칸트 철학 개론서. 칸트 철학의 모태가 되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상을 기점으로 하여 폭넓게 칸트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L.K. 뒤프레 지음/권수경 옮김/208면/7,000원

모더니티의 문제를 신, 자연, 인간 사이의 전통적 통합의 와해에 근거한 초월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하는 지은이가 종교 언어, 상징, 신화 등을 주제로 하여 우리 가운데 실재하는 초월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